자신 운영 사업장 예산삭감 앙심 심야 동료의원 폭행

"조폭이야" "의원이야" 순천시민 분통

시의회 사과문 발표

순천시의회 한 의원이 심야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자 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는 이례적으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현직 의원의 '조폭' 같은 행태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3일 순천경찰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주모(52) 시의원이 지난 21일 새벽 0시 3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노래방 앞길에서 동료 서모(47) 의원을 폭행했다. 또 주의원은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온 신모(45) 의원에게도 자신의 지인인 임모(41)씨와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서 의원과 신 의원은 모두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입원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이 자신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CCTV 설치비 3000만원과 채소동 도색비 2000만원 등 5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동료 의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자 이날 시의회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전화로 불만을 표출했고,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의 말투가 불손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찾아갔는데, 지인까지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순천시의회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배를 밟히는 등 20여분간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순천시민 긴급 사과문'을 통해 "의원들의 사소한 시비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예산 심의가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김모(45)씨는 순천시의회 게시판에 "의원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부끄러웠다"며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모(여·37)씨도 "선거철 교양있고 정의로운 말투와 달리 뒤에서는 주먹다짐을 일삼는 것은 기초의원들의 이중성"이라고 비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양 사학재단 1000억 교비 횡령 공범

2개 대학 총장도 구속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광양의 모 대학 이모(73) 이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조사과정에서 공범 혐의가 드러난 2개 대학 총장도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이사장이 설립한 전북 S대학 김모 총장과 경기도 S대학 송모 총장 등 2명을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에 관여한 공범으로 최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지난 1991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광주·전남, 전북, 경기도 등에 총 6개의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대학에서 교비를 빼내 다른 대학 부지를 사들이고 건물을 짓는 식으로 1000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81년 광주에 모 여상 설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충남 등에 4년제 대학 2곳, 2년제 대학 4곳, 고등학교 3곳 등 학교 9곳을 설립했다. 또 병원 2곳도 인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설립 과정에서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나 지난 1997년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이사장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나운찬 〈8717〉 김종두

제철맞은 돌미나리

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3일 광주시 남구 양촌동에서 주민들이 제철을 맞은 돌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돌미나리 한 상자(4㎏)는 도매시장에서 평균 1만2000원선에 거래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는 24일 오전까지 5~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주 두차례 면허취소 택시기사 만취상태 운전대 잡았다 또 덜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택시 기사 박모(5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5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농성 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한모(46)씨가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박씨는 "오늘은 택시 영업을 쉬는 날이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면허 취소 경력이 있으며 올해 초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보성 세자녀 숨지게 한 父 항소심 징역 7년으로 감형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최근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3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모(여·45)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경찰 공모?

용의자와 친구 사이… 우체국 내부 촬영 전달 의혹

도난 현금 소재 파악 못해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금고털이 용의자와 10여년간 다른 범죄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 삼일우체국 금고털이 용의자 박모(45)씨의 친구인 여수 삼일파출소 소속 A(45) 경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중이다. A경사는 사건 발생 10일 전 이 우체국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박씨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체국 내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경사가 우체국 내부를 찍는 장면을 발견했다"며 "형사과에 근무했던 A경사가 10여년 전부터 박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경사의 휴대전화와 집,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발견하지 못했다.

A경사는 "파출소장과 방범활동차 방문했다가 당시 상황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고,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사진을)지웠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과 지워진 사진을 복원하는 '디지털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붙잡았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와 범행도구, 도난금의 은닉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도구는 바다에 버리고, 현금은 여수 한 야산에 묻었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피해금액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DNA가 미제로 남은 지난 2005년 여수 미평동 현금지급기 890만원 도난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현금지급기 사건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북구청, 일신방직 옆 아파트 허가 부당"

광주시 "소음배출 50m 제한 불구 42m"

광주시가 일신방직 옆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북구의 일신방직 옆 A아파트 허가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건축허가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조만간 A아파트와 일신방직 사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당시 허가를 내준 북구청 공무원들은 징계 시효 2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 참여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북구청은 2005년 3월 A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북구는 당시 A아파트와 42m 떨어진 일신방직의 부속시설을 공장시설로 보지 않고 공장건물과 아파트간 거리(51.5m)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따라 소음측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는 소음배출시설(공장)과 아파트간에는 최소 50m의 거리를 둬야한다고 돼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1월 항의하는 A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부속시설이라도 공장건물인 것은 사실이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쌍나팔

"돈 안갚는다" 채무자 살림 실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지인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허락없이 옮겨놓은 대담한 40대 여성이 절도혐의로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45)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A(여·33)씨의 집에서 귀금속, 컴퓨터, 냉장고 등 660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빼내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A씨를 믿고 1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이사까지 가려고 하자 훔칠 의도없이 돈을 받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